

# “한라산까지 찾아가 설득”... 보이스포싱 ‘뚝’

## 제주에서도 월드컵 응원전 펼쳐진다 콘텐츠진흥원, 비인 공연장서 선착순 300명 응원

### 제주경찰청, 새정부 출범 1년 주요 치안 성과 발표 올 1~4월 보이스포싱 49% 감소... 피해액도 33% ↓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검거 늘고 사망 교통사고 줄어

제주지역에서 보이스포싱 범죄가 감소하고 교통사고 사망건수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경찰청은 국민주권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보이스포싱 범죄 감소,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엄정 대응, 교통사망사고 감소 등을 담은 주요 치안 성과를 9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4월 도내 보이스포싱 발생 건수는 모두 6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0건)보다 48.5% 감소했다. 피해액도 2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3억원)보다 32.7% 줄었다.

경찰은 악성 애플리케이션 설치자와 피싱 사이트 접속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보해 피싱범죄수사팀이 현장으로 출동하는 선제적인 대응으로 17명(약 12억5000만원)의 피해를 막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한라산 어리목까지 직접 찾아가 거액을 송금하려던 도민을 설득해 1억원의 피해를 막았고 최근에도 은행으로 이동중이던 대상자를 찾아내 1억5000만원의 피해를 예방했다.

또 도청·제주관광공사·교육청·마사회 등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비롯해 농협·제주은행 등과 협력해 ATM기기 옆에 비치한 ‘안심봉투’, SK텔레콤과 업무협약으로 도내 44개 대리점이 ‘피싱범죄 예방매장’을 운영하는 등 보이스포싱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가 구축됐다.

경찰은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대응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올해 1~4월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아동학대 등 관련 범죄 검거 건수는 189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6.1% 증가했다. 가해자 재발 방지를 위한 잠정(임시)조치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도 각각 72.1%, 58.9% 늘었다.

교통 분야에서는 교통 인프라 개선과 집중 단속으로 올해 4월 기준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 같은 기간 보다 20% 이상 감소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이륜차 사망자 급증으로 압행 순찰차와 캠퍼를 활용해 집중 단속한 결과 지난해 12월에 달했던 이륜차 사망자는 올해 들어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고령기 제주경찰청장은 “앞으로도 ‘우리곁에 제주경찰’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지역사회와 촘촘히 협력해 도민의 평온한 일상과 가장 안전한 제주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2026 북중미 월드컵 기간 제주지역에서는 ‘거리 응원’ 대신 ‘실내 응원’이 펼쳐진다.

제주콘텐츠진흥원은 대한민국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는 ‘월드컵 응원 페스타’를 연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제주도 일도2동에 있는 진흥원 내 비인(Be IN:) 공연장에서 대한민국 조별리그 3경기를 함께 관람하는 실내 응원전이다.

대한민국 대표팀은 조별리그 A조에서 체코(12일 오전 11시), 멕시코(19일 오전 10시), 남아프리카 공화국(25일 오전 10시)을 차례로 상대한다.

이번 실내 응원전은 대한민국 대표팀의 월드컵 경기를 대형 스크린과 음향 설비를 활용한 단체 응원 형태로 진행된다. 도민·관광객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300명이 실내응원전에 함께할 수 있다. 진흥원은 지난달 26일부터 선착순으로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이날 낮 기준 180명 정도 신청한 상태다. 진흥원은 예산 통과 시 경기 일정에 맞춰 추가로 응원전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번 월드컵 기간에 도차원에서 거리 또는 실내 응원이 계획된 것이 없다고 했다. 오는 10월 제주에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 준비로 제주종합경기장과 서귀포 월드컵경기장, 제주한라체육관 등을 활용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도축구협회 역시 현재까지 응원전 계획이 없는 상태다.

박소정기자

## 도, 10일부터 버스노선 안정화 2단계 시행 도심 급행·연삼로 직행노선 신설

### 혼잡 5개 노선 차량 증차

제주특별자치도가 출퇴근·통학 시간대 버스 혼잡 완화를 위해 연삼로 직행 노선과 도심급행 노선을 신설하는 등 버스노선 안정화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

제주도는 10일부터 버스노선 안정화 2단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2일 1단계 시행 이후 이용실태와 민원 분석 결과를 반영한 후속 조치다.

이번 2단계의 핵심은 신규 노선 2개 신설과 혼잡 노선 증차다.

새로 운행하는 도심급행 303번은 한라수목원에서 한라병원, 제주국제공항, 용담, 동문시장, 삼양을 거쳐 함덕까지 연결한다. 버스 8대가 투입되며 지정 정류소에만 정차한다. 신체주권과 공항, 원도심, 함덕을 잇는 이용 수요를 분산해 공항·동부권 간의 혼잡 완화가 기대된다.

연삼로 직행 337번도 신설된다. 해안동에서 한라중학교, 신제주초등학교, 연삼로, 거로사거리를 거쳐 봉개까지 운행한다. 노형·연동권과 봉개동을 직접 연결해 도심 환승이

나 우회 이동에 따른 불편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혼잡 노선에 대한 증차도 이뤄진다. 제주도는 282번, 355번, 356번, 360번, 411번 등 5개 노선에 차량 4대를 추가 투입해 하루 운행 횟수를 16회 늘린다. 다만 282번은 운수종사자 채용 일정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2024년 8월 버스노선 개편 이후 누적된 이용 현황과 민원 분석 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단계적 개선 대책의 일환이다.

제주도는 친환경 저상버스 구입 보조금 지원 대상이 지난 4월 확정됨에 따라 버스 도입 일정에 맞춰 2단계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안정화 대책이 모두 마무리되면 24개 노선에 버스 26대가 증차된다. 이 가운데 21개 노선은 운행 대수 확대와 배차 개선이 이뤄지고, 3개 노선은 신설된다.

제주도는 오는 12월 111번, 151번, 182번, 6000번 등 상시 혼잡 노선을 대상으로 3단계 증차도 진행할 방침이다.

김재현기자



성게 손질하는 해녀들 9일 제주도 조천읍 함덕리 해녀들이 마을 앞바다에서 채취한 성게를 손질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 제주시 시민복지타운 광장 분수대 가동 6월과 9월 금·일... 7~8월 화·일 오후 9시까지

여름철 무더위를 식혀줄 제주시 시민복지타운 광장 분수대가 본격 운영을 재개, 시원한 물줄기를 뿜으며 도시의 열기를 식힌다. 특히 도심에 자리 잡고 있어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단위 방문객이 즐겨 찾는 전망이다.

제주시는 여름철 시민들에게 도심 속 시원한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시민복지타운 광장 분수대 운영을 재개했다고 9일 밝혔다.

분수대는 오는 9월까지 야간 분수 조명과 함께 오후 6시30분부터 9시까지 가동된다. 6월과 9월에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 3일, 휴서기인 7~8월에는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 6일 운영된다.

특히 시는 주말 방문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들이 다양한 시간대에 분수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주간 시간대를 추가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분수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시설점검과 수질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월 2회 전문가를 통한 수질검



시민복지타운 광장 분수대. 한라일보 DB

사를 진행해 수소이온농도(pH), 유리잔류염소, 대장균, 탁도 등 총 4개 항목을 점검 중이며 쾌적하고 안전한 물놀이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백금탁기자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사랑으로**

# 당 축 선

CONGRATULATIONS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주지역 민생 안정과 해운·항만물류산업 발전에 더욱 힘써 주시는 도지사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성곤

제주항만물류협회 회장 강영근 사무국장 최영철 외 회원사 일동

**제주항**

대성해운(주)	회장	강공필	금강해운(주)	대표이사	장기조	거성물류(주)	대표이사	정상현	대성종합물류(주)	대표이사	강영근
대성종합물류(주)	대표이사	강영근	(주)한동	대표이사	고행진	(주)우진에스피	대표이사	문영규	CJ대한통운(주)제주지점	지점장	조관형
(주)대양운수	대표이사	조관형	오성로지스틱스(주)	대표이사	김경용	(주)석포물류	대표이사	김동현	(주)안정해운	대표이사	조인화
(주)대양운수	대표이사	고권표	(주)우리자원해운	대표이사	고영철	(주)현성엔씨티	대표이사	구범수	오성로지스틱스(주)	대표이사	김경용
성우해운(주)	대표이사	최무현	(주)한진제주지점	지점장	문종탁	세방(주)	지사장	김대일	(주)우리자원해운	대표이사	고영철
(주)제비엔해운	대표이사	허인철	동아물류(주)	대표이사	고택사				(주)한동	대표이사	고행진
동광해운(주)	대표이사	김경호	(주)한라로지스틱	대표이사	강성규				삼성해운(주)	대표이사	김만호

**서귀포항**

대성종합물류(주)	대표이사	강영근
CJ대한통운(주)제주지점	지점장	조관형
(주)안정해운	대표이사	조인화
오성로지스틱스(주)	대표이사	김경용
(주)우리자원해운	대표이사	고영철
(주)한동	대표이사	고행진
삼성해운(주)	대표이사	김만호

사진제공 임성복

제주항만물류협회    제주시 임항로 111    T. (064) 757-2925